

“스마트폰 와이파이, 인체 영향 걱정마세요”



고려대병원, 와이파이 신호에 5일간 줄기세포 노출 일반 세포와 성장 등 차이 없어...위해 요인 미발견

스마트폰을 바지나 재킷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경우가 많아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염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국내 의료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해봤다. 최근 고려대안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성형외과 김덕우 교수팀은 스마트폰의 와

이파이 신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사람의 원시 세포로 볼 수 있는 '지방 추출 줄기세포'를 스마트폰 와이파이 신호에 5일간 노출한 뒤 세포의 증식도를 관찰했다. 실험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해 하루 10시간 동안 4.8 Mbps의 속도로 파일을 계속해서 올리

록 설정됐다. 실험의 대조군으로는 배양 온도를 37도와 39도로 달리하고, 와이파이 신호에 노출시키지 않은 보통의 지방줄기세포가 각각 사용됐다. 이 결과 와이파이 신호에 노출시킨 줄기세포의 증식도가 와이파이 신호 없이 39도, 37도의 온도에서 배양한 줄기세포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또 실험에 사용된 3개 줄기세포에 대한 세포자살, 세포검사, 성장인자 분석 등에서도 와이파이 신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주목할만한 차이가 없

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서 외국에서는 휴대전화 와이파이 신호 등의 전자파가 고환의 온도를 높이고 이러한 열효과를 통해 생식샘에 영향을 미쳐 정자세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등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김덕우 교수는 “이번 실험은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신호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가설 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아직 분화가 이뤄지지 않은 줄기세포의 증식에 아무런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신호가 인체에 직접적 위해요인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이번 실험이 와이파이 신호가 줄기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것인 만큼 모든 휴대전화 전자파가 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두개 안면성형외과저널(Journal of Craniofacial Surgery)’ 최근호에 실렸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 출시 모든 스마트폰 스미싱 방지앱 탑재

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협 보안 강화·대응시스템 개선

파밍·피싱 차단 서비스 확대...경찰 금융사기 전담팀 신설

하반기에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에 소액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스미싱’을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기본으로 탑재된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게 소액결제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다. 정부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협의회’를 열고 신·변종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보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지난해 12월 마련한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추진이후 전자금융사기가 크게 줄었으나 공격유형의 다양화·지능화, 차단 시스템상 대응범

위의 기술적 한계 등이 나타나 추가대책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스미싱 대응시스템 보안 차원에서는 스마트폰 보안기술을 강화하고 대응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백신업체, 보안어 등으로 문자수집제널을 확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미싱 대응시스템 성능을 개선한다. 또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 출시 스미싱 차단 앱을 기본으로 탑재도록 유도하고 내년에는 악성앱의 모니터링 대상을 이통사 등 국내 주요 앱 마켓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 은행 등에 적용중인 파밍·피싱 차단 서비스는 2금융권 등으로 확대한다. 악성코드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대상 홈페이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경찰청은 8, 9월 ‘대표통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방



경찰청에는 전문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전담 수사팀이 신설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금융사기 피해건수는 3042건이다. 월평균 507건이 발생해 지난해(2780건)의 5분의 1 이하로 줄었다. 특히 스미싱의 경우 월평균 2480건에서 220건으로 피해가 감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상반기 보이싱 사범 2450명을 검거(구속 126명) 했으며 불법 차명물건관련 사범 273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KT ‘올레 인터넷’ 출시...월 2만원

최대 속도 100Mbps

KT가 최대 100Mbps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최저 월 2만원(다이렉트 할인 3년 약정 기준)에 이용할 수 있는 ‘올레 인터넷’을 지난 18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속도와 가격에 따라 스페셜, 라이트, 올라잇 등으로 분류하던 기존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속도를 최대 100Mbps급으로 제공하면서도 요금은 최저 수준이다. 기존의 인터넷 스페셜, 라이트, 올라잇 고객은 약정이 만료됐거나 실사용 3년 이상인 경우 올레 인터넷으로 전환 가능하며 상품 가입 문의는 올레닷컴(www.olleh.com)이나 고객센터(☎100번)로 하면 된다. KT는 신규 상품 출시와 함께 모바일, 올레tv, 집전화, 인터넷 전화 등의 결합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올레 인터넷과 올레tv를 묶어 월 2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KT 휴대전화를 2대 이상(LTE79 요금제 이상 1회선 포함) 사용하면 올레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 기가사업부장은 “KT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품질은 최고로 유지하면서 가격은 경제적인 인터넷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올 2분기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워치는?

‘삼성 기어 시리즈’

美스트래티지에널리틱스 발표 시장점유율 73.6%...2위 페블



지난 2분기에 세계에서 팔린 스마트 손목시계(스마트워치) 10대 중 7대는 삼성전자의 기어 시리즈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에널리틱스(SA)는 2분기 스마트 손목시계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의 판매량이 70만대로 가장 높았다고 지난 19일 발

표했다. 시장점유율은 73.6%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스마트 손목시계 시장에서 네 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자제품 전시회 IFA에서 처음 갤럭시 기어를 공개한 이후 지난해 3분기에 소니와 함께 공동 1위

에 올랐다. 이어 같은해 4분기부터는 스마트폰과 시너지 등으로 단독 1위를 이어오며 시장개척자(Pathfinder)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상당한 인기를 모은 삼성 기어핏은 스마트 손목시계가 아니라 스마트밴

드로 분류돼 이번 집계에 들어가지 않았고, 지난 6월 말에 공개된 기어 라이브도 3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또 스마트 손목시계를 포함한 착용형(웨어블) 스마트기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현재 스마트 손목시계로 갤럭시 기어, 삼성 기어2, 삼성 기어2 네오 등을 선보인 상태다. 2위와 3위 자리는 판매량 13만대(점유율 13.1%)와 8만대(점유율 8.4%)를 기록한 페블과 소니가 차지했다. 이들 두 회사는 삼성전자보다 앞서서 스마트 손목시계를 시판하기 시작했으나 지금은 삼성전자와 점유율 격차가 60%포인트 이상이 될 정도로 크게 시장에서 밀렸다. /연합뉴스

HP 저가 노트북 ‘스트림 14’ 공개

199달러...윈도 8.1 탑재 14인치 화면 2GB램 등

HP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윈도 8.1을 탑재한 저가 노트북 ‘스트림 14’를 단돈 199달러(20만3000원)에 내놓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모빌릭스, 기즈모도, 컴퓨터월드 등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HP는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코너에 스트림 14의 상세 사양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1366×768화소의 14인치 화면, 저전력 AMD 프로세서, 2기가바이트(GB) 램, 블루투스, 와이파이, 범용 직렬버스(USB) 포트, HDMI 아웃, SDXC 카드 슬롯 등을 갖추고 있다. 저장 용량은 32GB와 64GB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은 각각 199달러

와 249달러(25만4천원)다. 또 이 제품을 사면 100GB 용량의 원드라이브 저장공간을 2년간 이용할 수 있다. 스트림 14의 사양과 가격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구글 크롬 운영체제(OS) 기반의 크롬북과 유사하다. MS의 윈도 OS를 탑재한 PC의 판매량은 최근 수년간 정체 상태인 것과 대조적으로, 구글 크롬북의 판매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가 PC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MS는 올해 들어 250달러 미만의 기기에 사전 설치되는 윈도 8.1의 라이선스료를 50달러에서 15달러로 대폭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지난해 저가형 윈도 OS 탑재 노트북 출시 계획을 알리면서 ‘HP 스트림 14’가 199달러에 곧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상세한 사양은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p>CHANEL</p> <p>[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p> <p>[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p>	<p>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p> <p>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p>	<p>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p> <p>해남 영암 진도 장흥</p>	<p>스카이라이프 13</p> <p>IPTV 18</p>	<p>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p> <p>www.ichannelA.com</p>
---	--	--	---	--